

# 야심찬 종합대책...실효성은 "글쎄요"



장애아동 가족이 아프다

## <중> 미흡한 사회복지 정책

'인권도시'를 표방한 광주시는 3년 전 전국 최초로 야심차게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지원책을 내놓았다. 매년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장애인 유형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미스매치와 예산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 수립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임대주택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위기발달장애인 인턴쉽 운영 ▲취업 발달장애인의 출퇴근 지원 등을 추진중이다. 광주시는 종합지원 계획 수립 후 2년이 지난 올해, 총 80억원을 투입해 13가지의 세부적인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사회복지 정책 강화 속에서 대

3년전 발달장애인 지원책 수립 서비스 미스매치·예산 부족에 1대1 서비스 사라지는 등 퇴보 일부 시설, 관리 어려움에 기피 주택 지원사업 참여도 어려워

상자 확대와 사업 규모는 커졌으나, 발달장애가정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성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봉사자가 주간에 장애인을 돌보고 놀아주기 때문에 가장 요청이 많아, 2017년 시작할 때만 해도 인력과 대상자가 일대일로 매칭됐지만, 2019년 3월부터는 예산 등을 이유로 일대일 서비스가 사라지는 등 전반적으로 약화됐다.

현재는 '1대2' 서비스마저도 찾아보기 힘들고, 한명의 인력이 평균 4명의 발달장애인을 맡는 형태가 대세이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은 개개인 마다 특성이 달라

각자 필요한 활동이 다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다수가 함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명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일부 발달장애인들은 주간활동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잠시만이라도 부모들에게 개인시간을 보장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역시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한달 22일 기준 하루 6시간 씩 매달 132시간의 주간활동 서비스가 지원되지만 부모들은 턱없이 모자라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설에서 기피하는 경우도 다반사인 것도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주택 사업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발달장애인 자립을 돕겠다는 추진력 사업이지만 현재 중증 발달장애인은 참여조차 불가능하다.

장애 정도에 따라 1~4단계로 분류하는데, 경증에 가까운 1·2단계의 발달장애인은 참여할 수 있다. 나머지는 상주 관리자

없는 탓에 자녀들의 안전문제 등 불안함을 느낀 발달장애인 부모는 입주를 꺼리고 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상주 지원인력 배치와 함께 장애의 단계 구분 없이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주길 원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진단해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도 광주·전남지역에선 찾아볼 수 없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담병원 지정이 강제 사항이 아닌 탓이다. 현재 서울·인천·충남·전북·강원·부산 등 6곳에서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운영 중이다.

27년째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둔 A(60)씨는 "정신병원에 가면 당장 병명에 따른 진단을 받고 약물처방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전부다"라며 "또 내성이 생기면 복용량을 늘리고 약을 이것저것 바꿔보는 게 전부다"고 말했다.

## 광주대 홈페이지서 만나는 '낙화잔향'

5·18 40주년 기념 영화... 30일까지 무료 상영

광주의 오월을 다룬 영화 '낙화잔향'이 광주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상영된다. 5·18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한국 영화가 대학 홈페이지에서 상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대는 오는 30일까지 박기복 감독의 영화 '낙화잔향(落花殘香)-꽃은 저도 향기는 남는다'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상영한다고 밝혔다.

영화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팝업창을 클릭하면 관람할 수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1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최초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교내에 건립한 광주대는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픔을 함께하고자 홈페이지 상영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낙화잔향'은 지난달 광주 북구와 구례군청 등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영을 진행한 바 있다.

영화 '낙화잔향'은 80년 5월, 광주에서 열리는 뮤지컬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여대생이 계급군에 쫓겨가 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박기복 감독의 영화다.

박기복 감독은 "광주대 홈페이지 상영은 5·18 40주년 기념 한국 영화 최초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면서 "학생들과 학교 교직원, 그리고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영화를 시청하면서 민주와 인권의 5·18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사립 신규교사 위탁채용 해마다 증가

35개 법인 중 25개 참여...사학 공공성 강화 탄력 받을 듯

광주지역 사립학교 신규교사 위탁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21학년도 사립 중등(특수)교사 신규 채용 공동 전형 접수를 최근 마감한 결과, 25개 사학법인이 채용 신청한 교사 수는 123명이었다.

2018학년도 6개 법인이 15명, 2019학년도 6개 법인이 19명, 2020학년도 16개 법인이 67명을 채용했던 것에 비해 참여 법인과 선발 인원이 많이 늘었다.

광주지역 전체 35개 사학법인 중 77%인 27개 법인이 참여, 사학 공공성 강화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별로는 10명 이상을 동시 채용하는 곳이 4곳에 이른다. 죽호학원(금호중앙중·금호중앙여고·금호고·금파공고)이 17명

으로 가장 많고, 반대학원(광덕중·고)과 송원학원(송원유치원·초·중·고·여고·여상고)이 각각 15명, 춘태학원(전남여상고·국제고) 12명 등이다.

과목별 선발인원은 국어 15명, 수학 13명, 체육 12명, 영어 10명, 상담 10명 등이다. 역사 7명, 일반사회·생명과학·윤리 각 6명 등이다. 상업은 5명, 미술·음악·지구과학 각 4명씩이다.

오는 11월21일 치러질 1차 시험의 경우 28개 과목 중 23개 과목은 시교육청이 자체 출제하고, 조리·미용·보건·특수초등·특수중등 등 5개 과목은 공립중등 임용시험 문제를 치르게 된다. 1차 합격자(3~4배수)를 해당 법인에 추천하면, 법인 자체 전형을 통해 2차 수업실연, 3차 심층면접을 치른 뒤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호남대, '대학 인구교육 강좌 지원사업' 선정

호남대학교가 보건복지부 주관의 2020년도 '대학 인구교육 강좌개설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호남대 교양융합대학은 올 2학기에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행복한 삶에 설계'를 교양과목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호남대 학생들은 이 강좌를 통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정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교육 대학강좌개설 지원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결혼과 출산의 잠재적 의사결정자이며 고령사회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는 데 필요한 강좌의 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놀이혁신 선도지역 사업'

광주 남구 12일까지 공모

광주 남구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광주·전남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된 '놀이혁신 선도지역 사업'의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8일 '지역 여건에 적합한 놀이 모델을 발굴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놀이 문화를 제공하고, 또래끼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전문성 등을 갖춘 역량 있는 기관들의 사업 참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놀이혁신 선도지역 사업은 놀이 시간이 부족한 6세에서 1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다양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사업비 1억 4200만원을 투입해 놀이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관내 아이들 모두에게 체험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역을 3개 권역으로 분류, 각각의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할 3개 기관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오는 12일까지 놀이 프로그램 등 사업 계획서를 담은 참가 신청서를 남구청 6층 여성가족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식자재마트 주차장서 차량 돌진 8일 오후 광주시 서구 한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직원 휴게실로 돌진한 차량이 건물 밖으로 튀어 나와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마트 직원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 소태동 위생매립지, 주민 쉼터로 재탄생

기본계획 용역발주 계획...50억 투입 공원·학습센터 등 조성

광주시 동구 소태동 위생매립지가 지역 주민의 쉼터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동구는 사용이 종료된 동구 소태동 위생매립장부지를 복토작업 후 주민들의 체험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11년 매립이 종료된 광주 동구 소태동 위생매립장에 최종복토

를 시행, 오염물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사후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립장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동구 소태동 위생매립장부지는 7만 2035㎡(2만 1790평)의 면적에 지난 2000년 1월 2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105만6905㎡의 쓰레기가 매립됐다. 이 부지는 비엔날레 신규 전시관 후보

지나 아영장으로 검토된 적이 있다. 지난해 TF팀이 마련돼 복합레저공원 조성방안이다시 제출, 올해 추경으로 용역(용역비 7200만원)이 진행된다.

용역 업체는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최종복토 실시설계와 사후 활용계획 수립 등을 수행한다.

이 사업은 복토 작업에만 40억원이 투입되는 등 총 5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자원순화 학습센터, 상설 공연행사장, 소규모 체육공원, 반려동물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신세계안과

##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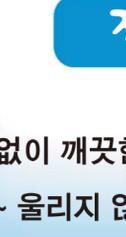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